

‘5년 고용보장’ 못 믿겠다는 노조, 위로금 적다며 투쟁

롯데카드-노조 갈등

5년 고용보장 계약서 공개 촉구
“1%수준 위로금, 배려없어” 주장
롯데카드 “처우보장 위해 노력”

다음달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매각되는 롯데카드가 고용보장과 위로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카드 노조가 고용안정과 위로금 등 합당한 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롯데카드는 매각 과정에서 임직원의 고용보장 5년을 약속했으나 롯데카드 노조 측은 믿을 수 없다며 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롯데카드 측이 제시한 매각대금 1% 수준의 매각위로금은 임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롯데카드지부(롯데카드 노조)는 4일 오후 잠실역 롯데타워 롯데몰 앞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롯데카드지부가 4일 오후 2시 잠실역 롯데타워 롯데몰 앞에서 고용안정 쟁취와 매각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는 고용안정 합의를 노조와 즉각 체결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롯데지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고용보장 5년’이라는 말 외에 어떠한 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매매 계약서 공개는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했다.

앞서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는 자사 매각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MBK컨소시엄은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임직원의 5년 고용보장을 약속했고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롯데지주가 롯데카드 매각 대금 1% 수준의 매각 위로금을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모든 상황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카드의 매각대금은 1조3810억원으로 이의 1%는 138억이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카드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수가 1694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당 약 8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동익 롯데카드지부 지부장은 “지난 3일 롯데카드 사측은 롯데지주로부터 1조3810억원의 1% 수준을 매각 위로금이라고 알려왔다”며 “2002년 창립 이후 17년 동안 누적금액 약 2조의 수익을 이뤄냈고 1조70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얼마 되지 않는 매각 위로금으로 임직원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고용보장 5년은 약속된 내용이고, 직원들의 처우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5년간 고용보장은 계약시

확약된 내용이다”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해왔고 앞으로도 대화를 지속하고 직원들의 처우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도 “계약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매각 협상 당시 고용안정이 우선순위였다”며 “롯데카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롯데카드와 노조, 인수 기업과 보장 내용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롯데지주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각 금액은 약 1조3810억원이다. 매각 지분 가운데 롯데지주는 20%가량의 지분을 보유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 당국의 승인과정을 거쳐 조만간 인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상 롯데카드 지분을 다음 달 11일까지 팔아야 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시장불안 트리거 사전 점검”

(방아쇠)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임기 한시적 연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드러난 이슈들과 함께 시장불안 확대의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 주요 위기들은 시장에서 간과했던 사소한 사건이 대형 악재로 확대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시장전문가와 인식을 공유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의 금융시장·산업 전문가와 외국계 증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밝지 않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긴밀히 연계된 주요 국가들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윤 원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며 “일본의 수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규제로 우리 산업에서 부품조달 애로 등 일본 관련 리스크가 부각됐고, 홍콩의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진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수출 및 경상수지 흑자 감소, 기업실적 악화 등 성장 둔화 조짐이 가시화됐다”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수급 문제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내외 이슈들의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윤 원장은 “현재 드러난 글로벌 불안 요소들은 관련 국가 간 입장차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유상증자 마무리 등 안정적 경영 고려
정운기 부행장 등 내년 1월까지 연장

케이뱅크가 자본확충 등 현안을 고려해 심성훈 현 행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4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은행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2인 등 5명의 이사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임추위는 지난달 초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 현재 공석인 사외이사 1인의 인선을 위해 1차 후보자 선정과 심사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 임추위는 안정적 경영 지속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사내의 이사 최종 후보자와 임기를 확정했다”며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케이뱅크 경영의 선봉에서 있는 은행장과 부행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행장과 정운기 부행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1월 1일까지가 될 예정이다.

카드 쓸 때마다 2000원 펀드 투자

신한금융그룹 ‘소액투자서비스’

이용자 성향에 맞는 투자상품 추천

신한금융그룹은 4일 일상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카드사용 내역을 활용한 자동 ‘소액투자서비스’를 출시했다.

소액투자서비스는 신한카드의 카드 이용 내역을 연계해 서비스 가입 시 약정한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국내펀드에 투자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실제 카드 거래 패턴에 맞춰 자동저축의 규칙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상품을 추천해 준다. 투자 약정방식에는 자투리투자와 정액투자 방식이 있다.

각 사용자의 실제 카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소액투자 시뮬레이션이 제공돼 나에게 딱 맞는 규칙을 투자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액투자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산출되는 투자금액을 합산해 카드 거래 다음날 합산된 금액이 펀드에 투자된다.

예를 들어 건별 정액투자의 경우 ‘건당 투자금액 2000원’을 약정한 이용자가 하루에 3번 카드 결제를 했다면 다음날 6000원이 펀드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자투리투자의 경우 1000원 또는 1만원 단위 설정이 가능하며, 자투리 설정금액 대비 결제금액과의 차액이 펀드에 입금되는 방식이다. /안상미 기자

새로운 상임감사위원 후보로는 NH투자증권 박대영 NH인재원장이 내정됐다. 박 후보자는 금융투자업 분야에서 전략기획부터 영업과 조직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임기는 2년(2021년 9월 22일까지)이 될 예정이다.

사외이사 후보 2인도 이날 확정됐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임하고, 윤보현 전 KG이니시스 대표이사가 케이뱅크의 새로운 사외이사로 합류하게 될 예정이다. 사외이사 후보 2인의 임기는 1년(2020년 9월 22일까지)으로 주총에 상정된다.

케이뱅크는 이달 23일 열릴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자 5인을 공식 선임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업계 최초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적금

KEB하나은행

‘마이트립적금’ 3종 출시

KEB하나은행은 4일 금융권 최초로 국내 주요 국적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여행적금인 ‘마이트립(My Trip)적금’을 출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트렌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적금 상품 가입을 통해 여행도 준비하고 항공사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우리은행 ‘여행적금2’

최고 연 6.0% 금리
맞춤형 제휴 서비스

우리은행은 최고 연 6.0%의 금리와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여행적금2’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 여행적금2는 정기적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월납입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금리는 가입기간 1년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8%에 우대금리 최대 연 4.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6.0%다.

적금 만기자금으로 제주항공 마일리지인 리프레시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금액의 5%가 추가 적립된다. /홍민영 기자